

제공일자	2014. 7. 30(수)	담당자	김석영 연구위원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29
			총2매

제목 : 적절한 상품설계와 효율산출 자율성을 통해 다양한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개발해야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김석영, 변혜원 연구위원은 『간편심사 보험 상품 활성화 방안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계간 보험동향 2014년 여름호 테마진단).
-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로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수익성 창출 기회로 고연령층 및 전통적 보험상품 가입이 거절된 그룹을 주목하고 있음.
 - 최근까지 고혈압, 당뇨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연령 소비자들이나 각종 질병을 경험한 유병자들은 정상적인 가입심사(underwriting)를 통과할 수 없어 보험 가입이 어려웠음.
 - 최근 보험회사들은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보험상품(SI: Simplified Issue Insurance Product)을 판매하기 시작함.
- 간편심사 보험상품이란 보험가입 시 전통적인 가입심사 과정 대신,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가입심사를 간소화한 상품을 의미함.
 - 기존에 완전고지 보험상품에 가입이 거의 불가능했던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새로운 보험상품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.
 - 그러나 관련 경험통계 부족과 이에 따른 합리적 위험률 산출의 어려움으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- 일본의 경우 일반 보험상품을 보완하는 형태로 입원과 수술을 중점적으로 담보하는 간편심사 건강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.
 - 일본에서는 간편심사 건강보험 상품을 일반상품 청약자 중 가입이 거절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만기계약자를 재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
- 미국의 경우 간편심사 보험상품이 종신, 정기, 유니버설 및 변액 상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.
 - 빠른 가입심사와 간편한 보험가입을 선호하는 소비자 그룹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판매함.
 - 아울러 간편심사 보험의 신속한 가입심사를 위해 자동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비롯하여 다양한 언더라이팅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음.
-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해당 시장에 지속적으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.
 - 전통적 보험상품 가입이 불가능한 가입자를 위험별로 세분화하고, 이들의 특성에 맞는 가입심사 질문을 마련해야 함.
 - 상품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장금액 한도 설정과 함께 가입 초기 보장금액을 감액하는 상품설계도 고려할 필요.
 - 다양한 간편심사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 보험회사에게 효율산출의 자율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.

첨부 : 테마진단 “간편심사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”. 끝.